

# 16세기 菩薩像 연구

金 光 熙\*

## 〈목 차〉

- I. 머리말
- II. 16세기 기년명보살상
- III. 16세기 보살상의 특징
- IV. 발원문을 통해 본 조성배경
- V. 맺음말

## 국문요약

16세기는 연산군과 중종대의 억불책, 명종대의 불교중흥책 등 불교에 대해 억압과 중흥이라는 극단적 대립이 있었던 시기이고, 고려후기의 귀족적 불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15세기와 조선시대의 민중불교적 특색이 분출되는 17세기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기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며 보살상도 제작되는데, 16세기의 기년명보살상은 7점으로 독존 혹은 여래의 좌우협시상으로 조성되었다. 16세기 보살상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별 작품의 양식적 특징에 국한되어 종합적 연구가 미진한 상태여서, 본고는 16세기 보살상의 특징과 그 조성배경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16세기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은 도식화, 간략화와 생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15세기 보살상은 2단 원통형 寶冠, 세밀하게 표현된 寶髮, 온 몸을 감싸는 영락장엄 등에서 고려후기 보살상 양식을 많이 계승하고 있지만, 점차 16세기가 되면 방형의 얼굴표현, 장식을 따로 제작하여 끼워 붙인 화려한 목제보관, 垂髮이 생략된 寶髮, 영락장엄과 장신구의 생략 등 과감한 생략으로 단순화되고 딱딱해지는 특징을 보여 17세기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6세기에 가장 많이 제작된 보살상의 도상은 觀音菩薩과 地藏菩薩이다. 극락왕생하는 미타정토 신앙과 현실세계에서의 고통을 해소하는 등의 구복신앙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졸업

다. 특히, 명부세계의 구세주인 지장보살과 冥界에서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시왕이 결합하여 명부전 내에 지장보살상,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 시왕상, 지옥 권속이 일괄로 봉안되는 군집형 지장시왕상이 새롭게 등장하여 매우 특징적이다. 재료적 측면에서는 15세기에 銅造像, 乾漆像이 주류를 이루다가 16세기에는 木造像이 증가한다. 제작공정이 까다롭고 고가의 재료인 동조상, 건칠상에 비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제작이 용이한 목조상의 양적 팽창은 후원의 중심계층이 왕실과 사대부에서 민중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16세기 보살상은 양식, 도상, 재료적 측면에서 15세기와 다른 특징을 보이며 16세기 후반기에 많이 조성된다. 그 배경은 연산군과 중종 재위시의 극심한 불교 탄압으로 단절되었던 불교문화가 명종대에 불교중흥책을 통해 새로운 불교문화를 꽃 피우게 했던 불교정책의 변화에 있다. 또 다른 배경은 발원자와 시주자, 제작자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16세기 보살상을 조성한 발원자 및 시주자 계층이 왕실과 사대부가 발원자로 등장하던 15세기와는 달리 승려와 일반 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제작자도 조각승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보아, 승려와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중불교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살상 조성의 목적은 대체로 현세구복, 망자의 극락정토 왕생을 염원하거나 지역민들의 지역결사적 성격을 띠다 하겠다.

주제어 : 菩薩像, 明宗, 地藏十王像, 木造像, 民衆佛敎

---

## I. 머리말

조선전기는 불교에 대한 억압과 통제 아래에서도 왕들의 불교성향에 따라 꾸준한 왕실불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건국초기인 15세기는 표면적으로 억불책을 표방했지만 호불적인 왕들의 비호로 불교는 그 명맥을 유지하였고 고려후기 양식을 계승하면서 왕족 및 사대부층의 지대한 후원 등으로 수준 높은 불교미술품을 남겼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연산군(1494-1506년 재위), 중종(1506-45년 재위)대에 선·교 양종과 승과의 폐지 등 가혹한 불교에 대한 통제는 불교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연산군도 수륙제, 안순왕후의 칠재 등을 배풀었으며, 중종은 수륙제를 지내고 능침을 맡은 사찰의 위전을 돌려주었고, 선조대에는 관왕묘에서 수륙제를 설하는 등 불교신앙은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암흑기의 불교가 다시 융흥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명종(1546-67년 재위)대이다. 어린 명종을 대신하여 수렴청정했던 文定王后와 문정왕후의 든든한 후원을 받은 普雨大師에 의해 양종과 도승법, 승과의 부활, 寺社田 확대, 회암사의 대대적인 증창 등 불교 증흥의 활로를 열었다.

따라서 16세기는 불교억압과 증흥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시기로서 이는 현재 남아있는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전기에 제작된 불상은 60여점 정도로 이 가운데 16세기에 제작된 작품은 15점 정도에 이르러 15세기에 비해 불상 제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16세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16세기 후반기에 조성되어 명종대 불교증흥책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편재되어 나타나고, 대체로 승려와 일반 서민들의 발원으로 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과 서민이 주축이 되는 16세기 불교문화의 단면은 양난을 겪은 이후인 17세기에는 더욱 팽배해진다. 이처럼 16세기 불보살상 작품은 고려후기의 귀족적 불교문화 영향을 강하게 받던 15세기와 민중불교적 특색이 분출되는 17세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과 같은 시기의 작품들로 매우 중요하다. 보살상도 같은 맥락으로 16세기 기년명보살상 작품은 독존상 5점, 본존불의 협시상 2점이 있다.(표 1)

본고는 16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성 배경에 대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16세기 보살상 가운데 제작년도가 명확한 7점을 중심으로 16세기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을 알아보고, 도상 및 재료의 특징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살상 내에 봉안된 발원문에서 밝히고 있는 발원 및 시주자 계층과 제작자를 통해 16세기 보살상의 조성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 II. 16세기 기년명보살상

16세기는 유교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안정화되던 시기인 동시에 불교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가장 극심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불교미술품에 관한 기록이나 남겨진 불상 작품이 매우 드물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16세기 기년명보살상은 독존상 5점, 본존불의 협시상 2점이 있고, 대부분이 명종대 이후인 16세기 후반기에 조성된 작품들이다.(표 1) 이들 작품수가 많지 않지만, 각각 살펴본 후 그 양식적 특징을 도출해내면 16세기로 편년되는 작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II장에서는 16세기 현존하는 기년명보살상 작품에 대해 각각의 상세한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표 1> 16세기 기년명 보살상 작품목록

번호	작품명	원소장처	현소장처	시대	규격(cm)
1	건칠관음보살좌상	경주 기림사	기림사 유물관	1501년	高 91.0
2	석조지장보살좌상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1515년	高 33.4
3	목조보살좌상	미상	제주 서산사	1534년	高 56.0
4	목조아미타삼존상	고창 참당암	고창 선운사 참당암	1561년	관음高 129.0 대세지高 126.0
5	목조지장보살좌상	나주 운흥사	목포 탈성사 명부전	1565년	高 141.0
6	건칠아미타삼존상	안동 서약사	안동 서약사 극락전	1567년	관음高 104.0 대세지高 108.0
7	목조관음보살좌상	완도 관음사	전남대학교박물관	1569년	高 41.5

### 1.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1501년)(그림 1, 2)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높이 93cm의 규모로 왼쪽 다리는 반가하고 오른쪽 다리는 아래로 내려 반가유희좌를 취한 채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보관을 쓴 머리에는 세 가닥으로 갈라져 마치 부채와 같은 모습의 보계가 있고,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垂髮은 없어 특징적이다. 방형의 얼굴은 볼이 통통하고, 쌍꺼풀이 있는 강렬한 눈, 오뚝한 코, 윤곽이 뚜렷한 입술의 표현 등은 근엄하고도 이국적인 인상을 준다. 착의법은 등을 모두 덮을 정도의 폭이 넓은 천의를

솔처럼 어깨 위에 두른 후 팔목을 감아 대좌까지 흘러내리고, 가슴에는 주름잡힌 수평형의 승각기를 띠매듭으로 묶어 나타내었다. 허리에 두른 띠는 복부에서 좌우대칭을 이루며 군의 안으로 넣었고, 군의의 옷주름이 넓게 흘러내려 상현좌와 같은 모습이 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장엄구 표현은 보관, 목걸이, 귀걸이 뿐이다. 보관은 2단을 이루는 원통형으로 상단부가 넓고, 당초문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있으며, 문양 표현에서 기교 없이 단순한 편이다. 목걸이는 중앙의 화형장식을 중심으로 세 개의 수식이 달려 있어 간략하다.

수월관음을 연상케하는 암반형의 대좌에는 보살상 조성에 대해 묵서하고 있는데<sup>1)</sup>, 이를 통해 1501년에 舍月山 西水菴의 堂主로 관음보살상을 조성하였고, 대화주로 前太內郡守 李園林이 등장하고 있어 고위관리직이 중심 발원계층임을 알 수 있다.<sup>2)</sup> 또한 이 작품은 섬유 반죽을 이용하여 조성된 건칠상으로 소재의 특수성이 있고, 상의 두께가 두꺼우면서 일정하지 않아 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16세기 보살상



<그림 1>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조선(1501년), 경북 경주



<그림 2>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뒷면

1)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원래 바위를 연상케하는 암반형의 목조대좌에 앉아 있었으나, 이 목조대좌는 현재 유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대좌에 묵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處同空□』弘治十四年辛酉丁月始至四月初八日,新羅舍月山山水菴堂主造□落山□觀音,菩薩造佛指位戒心從李明大□□□,供養主智熙,大化主通訓大夫前太內郡守李園林秉節,化主法行, (秦弘燮, 1996, 『韓國美術資料集成 (3)』, 일지사, 204쪽 祇林寺乾漆佛像 <造像銘> 인용)

2) 前太內郡守 李園林은 通訓大夫라는 정3품의 품계를 받은 인물이지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성종 8년(1477년)에 載寧郡守로 제수된 李元林이라는 인물이 있어 주목된다. 李元林은 재령군수로 제수 되기 전에 종4품의 품계를 받은 5위도총부 경력의 관직에 있었고, 기림사상이 조성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어서 그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成宗實錄』卷83, 成宗 8年 8月 甲寅)

3) 불교문화재단연구소의 X선투과 조사가 이루어져 밝혀진 것이다. (문화재청·불교문화재단연구소, 2008, 『한국의 불상 X-RAY조사 보고서1-乾漆佛』, 89~97쪽)

가운데 보기드문 건칠상으로 천의를 입은 보살상으로 유일하고, 수발이 생략된 보살상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작품이다.

## 2. 正德10年銘 석조지장보살좌상(1515년)(그림 3)



<그림 3> 正德10年銘  
석조지장보살상, 조선(1515년),  
국립중앙박물관

正德10年銘 석조지장보살상은 높이 33.4cm의 소형불로 16세기 보살상 가운데 유일한 두건형 지장보살상이다.

이 보살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왼손에 보주를 받쳐 들고 암좌 형태의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두건은 장식성이 전혀 없고, 정수리가 밋밋하며, 이마선의 경계로 음각한 두건띠를 돌렸는데, 두건띠를 귀 뒤로 넘기도록 표현하였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매우 크고, 어깨와 무릎의 너비가 좁으며 무릎이 낮아 신체비례가 짧아지며 둔중하다. 얼굴은 방형으로 이마와 미간이 넓고, 좌우로 긴 눈, 작지만 오똑한 코, 짧은 인중과 콧볼너비보다 좁은 작은 입 등 전반적으로 이목구비가 작으며, 미소를 머금어 온화한 인상을 자아낸다.

로 이목구비가 작으며, 미소를 머금어 온화한 인상을 자아낸다.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으로 대의와 편삼을 상반신에 걸쳤는데, 대의는 오른쪽 어깨 위에서 반달형으로 살짝 걸치고 있고, 왼쪽 상박부 측면은 좌우로 넓게 늘어진 대의자락이 안으로 말려져 있다. 수평형의 승각기는 굴곡없이 평면적이고, 다리 위로 균의가 직각으로 꺾여 내려 오는데 무릎 사이를 가로로 긴 주름선으로 간략히 표현하였다. 옷주름이 도식적이고 단순하며 상 전체가 단조롭고 평면적이다.

대좌 뒷면에 음각한 조상명을 통해 1515년 3월에 관음과 함께 조성되었고, 金順孫 부부, 金順代, 金貴千 부부, 宋和 부부가 시주하였으며, 화원 節學, 山人信□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⁴) 『正德十年乙亥三月』, 造成觀音地藏施, 金順孫兩主順代保, 金貴千兩主宋和兩主, 畫員節學, 山人信□, 助緣比丘智目, 法俊, 仁□,

### 3.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년)(그림 4)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56cm로 중품 하생인과 유사하나 1지와 3, 4지를 마주하게 한 손모습을 취하고 결가부좌하였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고 어깨와 무릎이 좁다. 머리 위에는 문양장식이 전혀 없는 청동제보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방형이지만, 턱이 각지지 않고 턱선이 완만히 둥글다. 눈두덩이가 밋밋하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은 길며, 코가 오뎅하고 콧폭을 넘지 않는 입은 입술선을 뚜렷하게 표현하여 선이 고우며 표정도 온화하다.



<그림 4>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조선(1534년), 제주도 남제주군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으로 오른쪽 팔 위로 편삼을 걸치고, 대의를 양 어깨 위로 두르고 있다. 오른쪽 어깨 위를 살짝 덮은 반달형 대의는 부드러운 사선으로 주름지고, 대의가 왼쪽 팔꿈치 위에 넓게 늘어져 좌우 끝 주름이 요형으로 말려져 있는데, 이러한 대의의 옷주름 처리는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유사하다. 가슴 위로 수평형의 승각기를 밋밋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무릎 부위는 옷이 몸에 밀착하여 다리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옷주름이 전혀 표현되지 않아 밋밋하고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이는 무릎 이하를 흉과 마포 등으로 싸서 후대에 보수하였기 때문이다.

像 내부에는 약재, 곡식, 팔엽개, 다라니, 발원문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백지에 묵서한 발원문 내용을 통해 1534년 봄에 주상, 왕비, 세자, 전라도 지방관리의 수복을 기원하고, 100여명의 승속인들이 시주하였고, 제작자는 화원 香圃, 智軒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특히 觀察使를 비롯한 牧使, 都事, 判官, 座首, 別監, 生員에 이르기까지 지방 관리들을 열거한 점은 두드러진

5) 『嘉靖十三年甲午春, 造成同發願文, 佛像真空無像宗, 古今非有亦非空, 妙体如如流法界, 月輪赫赫大千中, 主上殿下, 王妃殿下, 世子邸下, 觀察使南世雄, 牧使奉嗣宗, 都事朴世珣, 判官趙宗禮, 座首金健, 別監折洽, 生員羅益之, 佛像大施主羅崇義, 上金大施主梁益准兩主, 京畿道 楊州郡 水落山 鶴林庵 功德大施主 梁竺□, (중략) 證明 名仁, 持殿 性修, 畫員 香圃, 智軒, 侍奉 七伊, 別座 修仁, 熟頭 宗竺, 供養主 仁崇, 持寺佛像大化主 性一, 化主 淡熙, 丹青化主 信行, 蓋瓦化主 學讚, 願堂大施主 金江兩主, 梁竺兩主, 旻夫兩主, 文山兩主, 羅水山□, 加伊□, 林千石□, 金世貞兩主, 州清大施主 卜僅□□, □住山兩主, 姜春奴,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2, 186쪽.)

특징이다. 관찰사 南世雄은 1520년에 淸道郡守로 증중실록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sup>6)</sup>, 평안도 경차관, 좌부승지, 사간원 대사간, 좌승지, 형조참판, 병조 참의, 승정원 도승지 등 중종대에 두루 제수되고 등용되며, 1534년 윤2월에 전라도 관찰사로 제수되었다.<sup>7)</sup> 이를 통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되고 얼마되지 않아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사 奉嗣宗은 1536년에 나주목사 奉嗣宗의 파직되었다는 기록을 비추어<sup>8)</sup>, 발원문에 등장하는 목사 이하의 관료들이 전라도 나주지역의 관리이며, 이 像의 원봉안처도 나주지역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은 나주지역 승속들에 의해 조성된 지역결사적 성격의 보살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4. 선운사 참당암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1561년)(그림 5)



<그림 5> 선운사 참당암 목조아미타삼존상, 조선(1561년), 전북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에 봉안된 아미타상의 좌우협시인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중품하생인을 취하여 결가부좌하였다.

신체에 비해 큰 얼굴은 방형으로 턱선이 매우 각지고, 좁은 이마, 넓은 콧등, 좌우로 긴 작은 눈, 얇은 입술 등의 특징으로 이목구비가 둔탁하고 표정이 경직되어 보인다. 머리에 표현된 보계는 머릿결의 표현 없이 둥글게 말린 형태이고, 地髮은 등간격으로 U자형의 음각선을 넣었으며, 귀를 지나 한 가닥의 흘러내리고 있는 수발은 매우 가늘고 짧게 표현하였다. 보관은 가운데가 높은 원통형이고, 국화문과

6) 『中宗實錄』卷38, 中宗 15年 3月 壬辰.

7) 『中宗實錄』卷77, 中宗 29年 閏2月 癸卯.

8) 『中宗實錄』卷81, 中宗 31年 4月 戊子.

운문, 화염보주문을 따로 제작하여 빼곡히 장식하고 있고, 보관의 좌우에는 관대를 따로 만들어 장식하였는데, 바람결에 흔들리듯 곡선을 그리며 위로 상승하고 있다.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으로 대의와 편삼을 걸쳤고, 맛만한 가슴에는 수평형의 승각기를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옷주름은 유연하지 못하고, 매우 도식적이고 딱딱하다. 참담암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은 방형의 각진 얼굴, 신체에 비해 큰 얼굴, 딱딱한 옷의 표현 등에서 도식화가 상당히 진행된 16세기 후반기의 작품이다.

#### 5.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1565년)(그림 6)

민머리형의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명부전의 주불로서 반가좌의 자세로 앉아 있고, 그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 판관, 인왕상들이 함께 봉안되어 있다. 명부전 내에 지장보살상이 지옥 권속들과 군집형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전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16세기의 새로운 도상이다. 지장보살상의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나 가름하고, 미간이 넓고 눈이 좌우로 길며 입술이 얇고 가늘어 맛맛하고, 입 끝이 살짝 올라가 온화한 인상을 풍긴다.



<그림 6>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선(1565년), 전남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착의법도 변형통견식이다. 양 어깨를 두른 대의는 왼팔 위에서 대의 끝단을 요형으로 넓게 주름져 안으로 말려져 있고, 대좌 위에 상현좌처럼 드리워진 대의 옷자락이 도식적이며 딱딱하다. 또한 무릎 부위에서 균의를 띠로 묶고, 그 무릎 위를 볼록하게 표현한 점도 독특한데, 이러한 무릎 위를 묶거나 장식하는 것은 불화의 보살상에 많이 나타나며 조각에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라 하겠다. 달성사 지장보살상은 왼쪽 팔 위의 대의 끝단과 살짝 나온 복부, 복부 아래에 교차하는 편삼과 대의의 표현 등에서 앞서 살펴본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서로 상당히 닮아 있다.

이 像의 군집상으로 있는 제3송제대왕의 내부에서 백지묵서의 조성발원문과 시왕중수원문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에는 1565년 10월에 전라도 남평 雄岾寺(현.나주 雲興寺)에서 지장보살과 양 보처, 시왕존상, 각 상을 조성하였고, 主上三殿, 全羅監司, 城主 申默, 禪宗判事 惠能, 教宗判事 雪梅의 수

복을 기원하고 있으며, 화원은 香卍, 淡正, 崇見, 天鑑, 福壽가 등장한다.<sup>9)</sup> 수화승 향엄은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의 수화승과 범명이 같아서 주목된다. 두 보살상은 제작시기가 3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차화승이 다르지만 옷 표현 등의 조각기교가 유사하다.<sup>10)</sup> 또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은 전라도 나주에서 제작되어 나주지역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서산사 목조보살상과 지역적 접근성에서도 같은 조각승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조성발원문은 시주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시주자명과 시주 물목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장보살상, 도명존자, 무독귀왕, 시왕, 일직사자, 월직사자 등 각 존상마다 시주한 사람을 따로 명기하고, 그 아래로는 시주 물목의 내용 없이 시주자명만 기록하였다. 이것은 16세기부터 시주자의 경제력에 따라 시주한 내용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 6. 서악사 건칠아미타삼존불상(1567년)(그림 7)



<그림 7> 서악사 건칠아미타삼존상, 조선(1567년), 경북 안동

9) 『嘉靖四十四年乙丑十一月初二日記』朝鮮國全羅道南平, 地雄帖寺地藏及兩輔, 處尊十王尊位各像, 自春爲始至秋爲終安, 于道場因茲奉祝, 主上三殿壽萬歲, 全羅監司, 城主申默, 禪宗判事 惠能, 教宗判事 雪梅, 施主秩, 供養大施主 安承守, 地藏大施主 池庚同 □里也非, 道明尊者 尹終文, 姜千連, 無毒鬼王施主 □今, 金千億 (중략) 畫員秩, 香卍, 淡正, 崇見, 天鑑, 福壽, 別座林正, 供養主, 三女, 大化主, 智雄,

(성춘경 2000, 『達聖寺 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 『文化史學』14, 한국문화사학회, 71~72쪽)

10) 송은석 선생은 처음으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수화승인 '香卍'을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 유파의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지를 펼쳤다. (송은석,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37쪽)

안동 서악사 건칠아미타삼존상은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중앙에 아미타여래상이 앉아 있고, 그 좌우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이 서 있다.<sup>11)</sup> 이 보살입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들고 서 있는데,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아 신체비율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수리에 표현된 보계는 두 가닥으로 갈려져 높게 올라가 둥글게 말았고, 어깨 위로 드리운 두 가닥의 보발은 머리카락의 세션을 표현하지 않고 짧고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얼굴이 긴 방형으로 이목구비가 작고 얇은 입술의 끝이 살짝 올라가 미소를 머금은 듯 온화한 인상을 준다.

이 보살입상은 전반적으로 평면적인데, 오른쪽 어깨 위의 대의가 둥근 단을 이루며 주름이 잡히고, 복부부터 드리워진 대의가 U형태의 옷주름을 이룬다. 또한 왼쪽 팔 위로 길게 드리운 소매자락은 주름선이 부드러운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 끝이 제비꼬리처럼 조형되었으며, 뒷면은 밋밋하다.

머리 위에 쓴 보관을 제외하고 장신구가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 보관은 중앙이 높은 형태의 원통형으로 중앙에 좌상의 화불을 표현하고, 그 좌우로 여러겹 꽃잎을 가진 국화문과 솟아오르는 문계구름문, 화염보주문을 빼곡히 장식하고 있다.

몇 해 전 개금불사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가벼워 종이로 만든 상으로 전하고 있었으나 실사레가 없고 부드러운 조형미를 자아내는 것을 보아 ‘건칠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상 내부에서 3매의 중수개금기가 발견되었고, 그 가운데 1662년에 기록된 중수개금기의 말미에 隆慶元年 丁亥年에 처음 조성된 三尊像이라고 적혀 있어, 1567년에 조성된 삼존상임이 확인된다.

## 7. 완도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569년)(그림 8, 9)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은 윤왕좌를 취한 보살상으로<sup>12)</sup>, 앞으로 쭉 내민

11) 西岳寺는 경북 안동시 태화동 태화산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관왕묘를 지키며 명맥을 유지하였고, 雲臺寺라고도 불리운다. (權相老, 1979, 『韓國寺刹全書』下, 동국대학교출판부, 629쪽.) 속종실록에 따르면 안동의 관왕묘는 1598년에 진정영도사 설호신이 세웠고 石像이 있었으며, 1666년에 서악사의 東臺로 옮겼다고 한다. (『肅宗實錄』50卷, 肅宗37年 1月 壬辰) 현재의 사찰 내에는 극락전, 천불전, 요사가 있고, 조선후기에 증창된 천불전을 제외하고 모두 최근에 증창된 건물들이다.

12) 관음사는 전남 완도군 장좌리에 소재한 산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私寺이고, 절에 대한 기록과 목조보살좌상이 봉안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는 바가 없다. 완도 장좌리 상항봉에 觀音寺址가 있어, ‘관음사’라는 사찰명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의 관음사가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에 대해 최몽룡은 여래상으로 보았으나, 이 상은



<그림 8>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조선(1569년), 전남대학교박물관



<그림 9>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좌측면

고개는 사뭇 딱딱해 보인다.(그림 9) 넓은 어깨, 약간 나온 아랫배 등에서 당당하고 풍만한 신체적 감각이 느껴지며, 따로 제작된 손에서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두 가닥으로 둥글게 말아올린 보계가 있고, 보발은 수발이 생략되고 모발의 세부를 표현하지 않아 간결하다. 가름하면서도 살짝 보이는 방형 얼굴은 반달형의 눈, 오뚝한 코, 폭이 넓은 인중, 윤곽이 또렷한 입 등이 특징적이며, 오목 조목한 이목구비는 친근하고 웃음짓는 듯한 표정이 연출된다.

이 보살상의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으로 대의는 오른쪽 어깨 위에서 반달형으로 둘러졌는데, 가장자리의 띠가 지그재그식으로 주름을 이루어 흘러내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옷주름이 비슷한 간격을 이루고 간결하여 형식화되어가는 양상을 띤다. 장신구는 귀걸이를 따로 만들어 부착한 흔적만 있고, 보관을 썼던 보관턱이 존재할 뿐 장엄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상의 바닥면 중앙에 방형의 복장공이 있으며, 상 내부에서 발원문 1매와 불경, 동제후령통, 후령통 내에 五方鏡, 五藥, 五香, 보협진언문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의 내용은 1569년 여름에 金宗祖를 비롯한 5인이 시주하였고, 先妻가 極樂에

가도록 명복을 기원하고 있다.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미소짓는 듯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움이 남아 있는 16세기 후기의 뛰어난 보살상이다. 그러나 다소 번잡해 보이지만 비슷한 간격으로 접은 옷주름은 도식적이고 형식화 되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보계를 표현한 보살상이다. (崔夢龍, 1977, 『莞島 觀音寺 木造如來坐像과 腹藏遺物』, 『美術資料』20, 국립중앙박물관, 64~67쪽.)

### Ⅲ. 16세기 보살상의 특징

#### 1. 16세기 보살상 양식

16세기 보살상은 절대연대가 있는 작품이 7점으로 2장에서 각각 살펴 보았다. 16세기는 불상의 작품 수가 적고, 적은 작품으로 공통점을 찾아 양식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15세기 보살상과는 확연히 다른 16세기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얼굴표현의 변화이다. 16세기 보살상은 15세기에 비해 신체비례 면에서 얼굴이 신체에 비해 커지고, 얼굴표현은 각진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림 10) 15세기 보살상인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도 얼굴이 방형이기는 하나 불상이 통통하게 올라오고, 턱선이 둥글어 환미감과 입체감을 준다. 반면 16세기는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서악사 건칠보살입상<sup>13)</sup>,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에서 보아지듯이 얼굴이 신체에 비해 더욱 커지고, 대체로 1대 1 비율의 방향으로 얼굴의 볼륨감이 사라져가며, 턱선은 둥글어 부드러움이 남아 있다. 한편, 16세기 후기에 매우 각지고 둔탁한 방향의 얼굴 표현을 한 보살상도 등장한다. 그 대표적 작품사례가 선운사 참당암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이다. 참당암 목조보살좌상의 얼굴은 거의 1 대 1의 길이와 폭의 비율로 확인한 방향이고<sup>14)</sup>, 작고 좌우로 긴 눈, 콧등이 넓은 코, 얇고 좌우로 긴 입 등의 표현에서 딱딱하고 굳은 인상을 주며, 이러한 특징은 범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과 같이 17세기 불교조각



<그림 10> 조선시대 보살상 얼굴표현

13) 안동 서악사 아미타여래의 좌협시인 건칠관음보살입상은 발제선~턱 15.0cm, 얼굴너비 12.8cm이고, 우협시인 건칠대세지보살입상은 발제선~턱 15.8cm, 얼굴너비 13.4cm로 너비에 비해 길이가 긴 장방형 얼굴이다.

14) 선운사 참당암 목조아미타삼존상의 좌우협시보살인 이 보살상들은 발제선~턱 24.2cm, 얼굴너비 26.5cm로 얼굴길이보다 너비가 더 넓게 나타나고 있어 조선후기 양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참담암 목조보살좌상을 제외한 16세기 보살상은 대체로 방형이면서도 턱선의 완만함으로 부드러움이 남아 있고 온화함이 베어나오는 인상이 특징이며, 17세기에 이르러 방형의 도식화된 얼굴로 변화되어 간다.

둘째는 착의법의 변화이다. 16세기 보살상은 대의를 통견식으로 착용한 보살상은 한 점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대의와 편삼을 입은 변형통견식의 보살상이 유행하며, 천의를 입은 보살상도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이 유일한 예로 천의를 착용한 보살상도 찾아보기 어렵다.<sup>15)</sup>

우선, 천의형 보살상인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은 양 어깨 위로 솔처럼 두른 천의가 거의 등을 다 덮을 정도로 너비가 넓다는 특징을 가진다.(그림 2) 한편, 대의와 편삼을 입은 변형통견식의 16세기 보살상은 오른쪽 팔 위에 편삼을 두르고 그 위에 대의를 둘러 왼쪽 어깨 뒤로 끝자락을 넘기고 있고 가슴에는 수평형의 승각기를 입었으며, 하반신에는 균의를 착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옷주름이 비슷한 간격을 이루고 간결하여 형식화되어가는 양상을 띠는데, 이러한 옷주름은 17세기가 되어 층을 이루는 듯이 도식적으로 표현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왼쪽 어깨 위에 Ω형의 대의 주름도 17세기 불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16세기의 보살상 착의법이 양난 이후에 왕성하게 조성되는 17세기 불교 조각에 영향을 미친다.

반가좌의 모습을 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대의자락의 대좌 위에 길게 드리워져 상현좌처럼 주름을 이루는데(그림 6), 국분사 지장시왕도(1586년)와 같은 불화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회화성을 띤다(그림 11) 이와 같은 상현좌의 모습은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그림 12)과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그림 13)에도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어, 이들 작품도 16세기 후기에 조성된 작품이라 생각된다.

셋째는 16세기 보살상에 나타나는 보관의 변화가 주목된다.(그림 14) 15세기의 보살상 보관은 파계사 건칠보살좌상이나 낙산사 건칠보살좌상의 보관처럼 원통형보관에 2단 내지는 3단을 이루고, 바탕면에는 당초문을 빼곡히 표현하고 보관 테두리에 화염보주를 장식하였다.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보관의 경우, 하단은 연꽃과 연꽃잎 무늬, 당초문을 도드라지게 조각하고, 중단과 상단은 당초문을 투조하여 섬세하게 나타내었다.<sup>16)</sup> 16세기 보살상의 보관은 원래 불상이 조성될

15) 조선전기 보살상의 유형을 상체에 걸친 옷을 기준한 착의법에 따라 분류하면, 15세기에는 大衣 착의형, 大衣·偏衫 착의형, 天衣 착의형이 함께 나타나지만 16세기에는 대의 착의형과 천의 착의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의와 편삼을 함께 착용한 보살상에 현저히 많다(김광희, 2007.8, 『朝鮮前期 菩薩像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92쪽.)

16) 김광희, 2007.8, 위의 글, 63~64쪽.



<그림 11> 國分寺  
지장시왕도의 부분,  
조선(1586년), 日本 山口縣



<그림 12>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선(16세기), 경북 봉화



<그림 13>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선(16세기),  
동국대학교박물관

			
A. 파계사 건칠보살좌상의 보관, 15세기	B.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의 보관, 1501년	C. 참당암 목조보살좌상의 보관, 1561년	D. 서악사 건칠보살입상의 보관, 1567년

<그림 14> 조선전기 보살상 보관

때 함께 조성된 보관이 남아있는 사례가 드문 가운데,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은 15세기 전기에 보이던 원통형 보관으로 2단으로 나뉘어 관면에 모두 당초문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있다. 투각의 기법이 사용되던 15세기의 보관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지지만, 주문양이 식물문이라는 점과 2단의 원통형보관이라는 점에서 전통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 참당암 관음·대세지보살상과 서악사 관음·대세지보살입상의 보관은 대체로 보관의 단이 사라지고, 원통형 보관에 운문, 국화문, 화염보주문을 따로 제작하여 삐곡히 부착하였는데, 부착하는 문양이 시기가 떨어질수록 크고 많아지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보관은 17세기에 더욱 성행하게 된다.

넷째, 16세기 보살상은 垂髮의 생략과 寶髻와 장신구의 간략화가 특징적이다.(그림 15)

16세기 보살상의 보계와 보발의 표현을 살펴보면, 낮은 보계는 대체로 두가닥으로 둥글게 간략히 말아올려 매우 형식화되고, 어깨 위로 드리우던 垂髮은 짧아지거나 생략되며, 이마선의 地髮과 정수리 부위와 뒷부분에 머릿결을 표현하지 않고 흑색으로 채색하여 마무리 하는 등 정교하고 섬세함을 찾아볼 수 없다.

				
A.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1501년	B. 참당암 목조보살좌상, 1561년	C. 서악사 건칠보살입상, 1567년	D.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569년	E. 신안사 목조보살입상, 16세기

<그림 15> 16세기 보살상 보계 및 보발

15세기 보살상의 보계가 다섯 가닥으로 부채꼴로 높이 말아올린 형태로 머릿결을 촘촘히 표현하고, 수발을 어깨 위에 고리를 만들고 팔꿈치까지 곡선을 그리며 길게 흘러내리도록 표현한 것에 비하면 16세기 보살상의 보계와 보발의 표현은 매우 단순화된 것이다.<sup>17)</sup> 보살상을 상징하던 수발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특징으로 수발 없는 16세기 보살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이고,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와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도 어깨 위로 흘러 내리는 수발의 표현이 생략되었다.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신안사 목조관음보살입상의 보계도 높이 솟아 둥글게 말아올렸는데 그 폭이 매우 넓은 큰 편이고, 듬성하게 빚어내린 보발은 귀를 휘감아 돌지만 역시 수발이



<그림 16> 신안사 목조아미타삼존상, 조선(16세기), 충남 금산  
보살상이라 판단된다.<sup>17)</sup>(그림 16)

없다. 신안사 목조 관음보살입상은 보계와 보발의 특징 이외에도 평면감이 두드러진 방형의 얼굴, 연봉과 구슬로 장식된 수식이 드리워진 간략한 목걸이 등의 표현 등으로 16세기의

<sup>17)</sup> 신안사 목조관음·지장보살입상은 극락전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상의 좌우협시 보살상으로 각각 178.8cm, 163.0cm로 장대한 규모이다. 관음보살입상은 머리 위에 높은 보관을 썼고, 지장보살입상은 민머리형으로 모두 합장을 하고 연꽃대좌 위에 서 있다. 신체가 길고 늘씬하며, 어깨가 둥글게 처져 있다. 방형의 얼굴은 평면성이 두드러지며, 표정이 매우 근엄하다.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으로 양 어깨를 덮은 대의는 마치 통견식으로 걸친 것처럼 표현되어 특징적인

그리고, 16세기 보살상은 15세기 보살상인 파계사 건칠보살좌상(그림 17), 낙산사 건칠보살좌상, 은혜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처럼 온몸을 휘감아 나타내던 영락장식은 물론이고, 목걸이 장식을 착용한 사례도 거의 없다시피 드물다. 다만,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은 목걸이 장식이 나타나지만, 수식이 3개가 늘어져 단순하게 표현되어 간략화된 양상을 보인다. 16세기 보살상의 장식성 생략 및 단순화는 앞서 살펴 본 수발의 생략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2)



<그림 17>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조선(15세기), 대구

보살상은 자비로운 여성상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여래상과 구별되었는데, 그러한 상징적 표현인 수발과 장신구를 생략한 것은 보살상보다 여래상의 이미지에 가깝도록 표현하여 보살의 존격이 여래만큼 상승되고 예배대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물론, 16세기 조각승들이 제작자로 등장하면서 작가의 표현적 한계로 인해 과감히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섯째, 16세기 지장보살상의 머리표현이 15세기 주되게 나타나던 두건형에서 민머리형으로 변화한다.

16세기 전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면서 유일하게 두건을 쓰고 있는 正德10年銘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두건은 주름의 굴곡없이 매우 밋밋하고 간략하게 표현되었고, 16세기 후기에는 지장보살상은 두건형이 사라지고 승려의 모습을 한 민머리형이 유행하게 된다. 대표적 사례가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이고, 이 상과 유사한 지장보살좌상이 있어 주목된다.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민머리형의 머리표현, 반가좌의 자세, 상현좌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보다 넓은 어깨, 약간 나온 아랫배 등에서 풍만한 신체적 감각이 느껴지며 양감이 뛰어나 시기가 조금 앞설 것으로 판단된다<sup>18)</sup>. (그림 12) 민머리, 반가좌의 자세, 상현좌 등의 특징은 동국대학교박물관 서울캠퍼

데, 주름은 세부표현이 전혀 없이 매우 밋밋하다.

<sup>18)</sup> 봉화 청량사 유리보전의 약사여래상 협시불로 봉안되어져 있는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 상높이가 132cm이고, 함께 봉안된 약사여래상, 관음보살상과 양식과 소재가 전혀 달라서 다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찰 측의 전언에 따르면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원 봉안처는 명부전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약사여래삼존상의 불탁 향좌측에 따로 봉안된 도명존자상과 무독귀왕상이 지장보살상과 1조를 이루어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스 소장의 목조지장보살좌상(그림 13)과도 유사하여 16세기 지장보살상의 양식적 공통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세는 입상이지만, 민머리형의 머리, 평면적인 방향의 얼굴, 간략한 목걸이, 주름이 밋밋한 옷의 표현 등에서 신안사 목조지장보살 입상도 16세기 작품으로 편년될 수 있다.(그림 16)

이후 17세기 지장보살상의 머리 표현은 대부분 민머리형이며, 17세기 지장보살상 중 두건형은 162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제 귀신사 명부전에 봉안된 소조지장보살좌상이 유일하고, 이 보살상의 두건은 마치 짧은 너울을 쓴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조선전기의 두건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16세기 보살상은 작품 수가 적은 가운데 양식적 특징으로 전기와 후기로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15세기와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얼굴은 대체로 방형이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풍기며 조각선이 고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착의법은 대의와 편삼을 입은 보살상이 유행하며, 천의 착의형 보살상은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이 유일하다. 보관은 원통형에 화염보주, 봉황, 꽃과 구름 등을 따로 만들어 끼우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한편, 지장보살상은 15세기에는 두건형과 민머리형의 머리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데 비해 16세기에는 대다수가 민머리형으로 표현된다. 화려했던 영락장식이 거의 사라지고, 목걸이도 간략화되거나 생략되는 것이 일반화되며, 보계와 보발도 역시 세부 표현이 매우 도식화되거나 생략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수발의 생략은 독특하다.

이와 같은 단순화와 생략, 도식화라는 단어로 귀결지을 수 있는 16세기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가 되면 더욱 도식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 2. 군집을 이루는 지장시왕상의 출현

기록과 현존하는 작품사례의 도상을 고찰해 볼 때, 조선전기는 60여 작품 가운데 10여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미타여래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보살상 가운데 독존상은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15세기는 경상도지역에서 독존의 관음보살상이 유행하였으며, 16세기에 접어들면 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단독상으로 조성되던地藏菩薩像이 좌우협시인無毒鬼王,道明尊者과十王, 그리고 지옥 권속의 무리들과 군집을 이루며 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군집을 이루는 지장시왕상의 가장 이른 사례가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1565년)이다.(그림 19) 15세기에 조성되는 단독의 지장보살상과 달리 16세기에는 군집형 지장시왕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16세기의 지장신앙에 관련된 기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15세

기 지장보살상 작품과 기록, 16세기 지장시왕상 작품들을 통해 지장신앙의 성행과 균집형 도상 출현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조선전기 보살상의 시기별 머리 및 장엄구 표현

	15세기		16세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보관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무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478년경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1501년	 서악사 건칠보살입상, 1567년
보계 · 보발	 용문사 금동보살좌상	 개목사 목조보살좌상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1501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569년
두건	.	 은정골 금동지장보살좌상, 1451년	 정탁10년명 지장보 살상, 1515년	두건형 없음 (민머리형)
목걸이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무위사 목조지장보 살좌상, 1478년경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1501년	목걸이 없음

15세기 지장보살상은 대부분 아미타여래의 협시불로 등장하고 있고, 전각 내에 본존불의 성격을 띠며 절대연대가 있는 작품은 없으며, 다만 15세기작으로 추정되는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다. 금강산 은정굴 금동아미타삼존상(1451년), 매곡동 금동아미타삼존상(1468년),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상(1478년경),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상(1484년경) 등 여래의 우협시불이 모두 지장보살상이다. 고려후기부터 아미타여래의 우협시로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도 계승되고 있다. 사후세계에 관여하여 망자의 죄를 구제해주고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인도하여 정토세계로 이끌어 주는 지장보살은 유교가 국가이념인 조선시대에도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 2년에 왕대비의 齋를 위해 지장보살과 시왕 앞에 올리는 물품을 각기 달리했다는 내용과 세조가 죽은 왕세자를 위해 『地藏經』을 寫經하거나 백성들을 위해 『地藏菩薩本願經』을 국역하여 간행하는 등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15세기에는 신분을 떠나 유행했던 지장신앙의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15세기 독존의 지장보살상은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상 뿐이다(그림 18) 이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 80cm의 두건형 지장보살상으로 오른손에 보주를 받쳐 쥐고 걸가부좌하였는데, 불살이 통통히 오른 둥근 얼굴의 뚜렷한 이목구비, 부드러운 층계를 이루는 옷주름의 표현, 촘촘하게 주름 잡힌 두건과 장식성이 돋보이는 두건 띠의 끝마무리 등이 특징적이어서 15세기 작품이라 생각된다. 15세기에 조성된



<그림 18>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선(15세기), 전남 고흥

지장전 내에 봉안되어 본존불의 성격을 띠는 지장보살상으로 유일한 예이다. 이렇듯 15세기는 지장보살상이 아미타여래의 우협시불로 조성되거나 전각 내에 홀로 봉안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16세기가 되면 군집형 지장시왕상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등장하게 된다.

군집을 이루는 지장시왕상의 가장 이른 사례가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1565년)이다.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은 원래 나주 운흥사에서 조성된 작품으로 冥府殿에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 시왕상, 일직사자상, 월직사자상, 각 권속상이 1조로

<sup>19)</sup> 김광희, 2007.8, 위의 글, 21~22쪽.



<그림 19> 달성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및 권속상 일괄 배치도



<그림 20> 청량사 목조지장삼존상, 조선(16세기), 경북 봉화

함께 봉안된 작품이고, 현재는 전각 입구를 지키는 장군상이 후대에 조성하여 시립하고 있다.(그림 19) 또한 달성사 지장보살좌상과 민머리, 반가좌의 자세, 의습 표현 등이 유사한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도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을 함께 봉안하고 있어 권속과 함께 등장하는 도상이 성행되기 시작했음이 확인된다.(그림 20) 16세기에 조성된 불화 50여점 가운데 15점 가량이 地藏十王圖이고, 대부분 시왕, 지옥 권속과 군집도를 이루는 점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sup>20)</sup>

지장보살과 시왕이 함께 등장하는 도상은 이미 고려 후기 지장시왕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나<sup>21)</sup>, 불상으로 표현된 작품은 없고<sup>22)</sup>, 15세기에도 전혀 나타나

20) 박은경의 조선시대 15-16세기 불교회화 작품목록을 참조하였다. (박은경, 1993.12, 『麻本佛畫의 出現-日本 周防 國分寺의 <地藏十王圖>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199·200, 한국미술사학회, 87~88쪽.)

21) '지장시왕의 도상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당말에 편찬된 『預修十王生七經』을 통해 지장과 시왕이 결합하고, 고려시대가 되어 『預修十王生七經』이 유행하면서 불화 작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22) 고려시대 지장시왕상은 전하는 사례는 없으나,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銅造大王像이 1구 존재한다. 이 동조대왕상은 용도, 봉안처, 독립상인지 군집상인지



<그림 21> 지장시왕도, 조선(1562년),  
견본채색, 95.2×85.4cm, 日本 光明寺



<그림 22> 지장시왕도, 조선(1586년),  
마본채색, 196.1×175.8cm, 日本 國分寺

지 않다 16세기가 되어서 지장시왕 도상이 불상과 불화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림 21, 22)

16세기가 되어 지장보살상이 시왕상, 지옥 권속상들과 군집하는 형상의 새로운 도상이 출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명종대에 문정왕후와 보우대사에 의해 불교가 융흥하게 되는 불교계동향과 연관될 것이다.

16세기의 지장신앙에 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거의 없다. 15세기에 유행했던 지장신앙은 16세기의 엄청난 불교탄압 속에서도 사후세계의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불교의례로 계속 성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50년 이후의 작품이 조성되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밝혔듯이 명종대 문정왕후와 보우대사의 불교중흥책과 관련이 있다.<sup>23)</sup> 왕실불교의 성행은 민중들에게도 숭불성향을 일반화시키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적극적인 불사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장보살상이 16세기 전반기에 명종대 이후의 작품이 많고, 지장시왕도의 조성도 비슷한 맥락이며 지장시왕도의 발원층이 왕실부터 일반서민, 승려층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나타나서 명종대의 불교부흥책이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규격이 26.2cm로 소형이기 때문에 전각에 봉안된 용도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sup>23)</sup> 명종대의 불교중흥책에 대해서는 선행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다. (홍우성, 1978, 『朝鮮中期 佛教中興運動考』, 『東國思想』10·11; 강덕우, 1994, 『朝鮮中期 佛教界의 動向-明宗代의 佛教施策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56; 김정희, 2001.9,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畫』, 『美術史學研究』231, 한국미술사학회.)

있다.

둘째, 지장보살이 독존상보다 협시상, 시왕상을 비롯한 여러 권속들과 무리를 이루며 군집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각의 역할 변화와 후불탱인 지장시왕도와의 관계가 연관된다고 본다.

고려후기에는地藏殿과十王堂에 각각 지장과 시왕을 따로 봉안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가 되어冥府殿이 명부세계의 결집체로의 성격을 띠며 지장과 시왕의 결합으로 지장시왕상이 군집으로 함께 봉안된다.<sup>24)</sup> 달성사 지장시왕상 및 권속상들은 봉안된 전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원봉안처가 아니라서 처음 조성될 당시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조성발원문을 통해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지옥 권속상들이 동시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어 같은 전각에 봉안되었음은 분명하다.<sup>25)</sup> 즉, 적어도 16세기부터 지장시왕상이 지옥 권속들과 군집을 이루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16세기의地藏十王圖도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시왕이 결합되거나 지장보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 판관, 사자, 옥졸, 동자 등 지옥권속이 군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지장시왕도는 화면의 가로너비가 2m 가량 되는 등 크기가 달라지고 있어, 용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26)</sup> 또한 일본持福寺 소장의 지장시왕도 화기의 내용에는 ‘後佛’, ‘像佛’라고 기록하고 있어,<sup>27)</sup> 16세기 명부전은 지장시왕상을 봉안하고 본존불인 지장보살상의 뒤에 후불탱으로 지장시왕도를 배치했을 것이다.

16세기는 유교가 풀지 못하는 사후세계에 관해 불교가 담당하면서 지장과 시왕이 결합한 명부신앙의 성행은 명부전의 주존불로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고 명부세계에서 망자에 대한 죄의 경중을 심판하는 시왕, 지옥 권속 등 모든 도상이 군집형태로 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후 조선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양난 이후에 조성되는 거의 모든 명부전에는 지장시왕상 및 권속상들이 1조를 이루며 조성되는 양상이 빈번해진다. 조선후기 명부전에 봉안된 작품인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시왕상(1648년),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시왕상(1666년), 기장 장안사 석조지장시왕상(1684년), 통영 용화사 목조지장시왕상

24) 김정희, 1996,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60~168쪽.

25)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의 원봉안처는 앞서 살펴 본 바대로 나주 운흥사이다. 지장시왕상이 운흥사에서 달성사로 이운된 시기나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달성사가 1913년에 창건 되었으므로 근대에 옮겨온 것으로 보여 봉안 위치나 전각과 후불탱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달성사 명부전 내에 후불탱 없이 지장시왕상만 봉안되어져 있다.

26) 박은경, 1993.12, 위의 글, 87~88쪽 <표> 참조.

27) 박은경, 1993.12, 위의 글, 85쪽.

(1690년) 등은 16세기의 균집형 지장시왕상을 계승하고 확대시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 3. 16세기 목조상의 유행

불상을 제작하는 재료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전기의 불교조각도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지만, 현존하는 작품을 통하여 불 때 동, 건칠, 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편이다. 15세기에는 銅造像과 乾漆像이 많이 조성되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木造像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소재의 변화는 보살상 조성에도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료가 변화하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맥락과 발원계층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16세기에 조성된 불보살상은 대부분이 목조상이라 할 정도로 월등히 많으며, 16세기 기년명보살상 7점 가운데에서 3점을 제외하고 목조상이다. 목조상은 금속제의 불상이나 건칠상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지 않고, 재질이 견고하며,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조각의 재료로 고려후기부터 애용되었는데, 특히, 16세기에 두드러지게 많이 조성된다. 15세기 목조상을 조성한 발원층은 왕실과 일반 서민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1466년) 등은 왕실발원 작품이고, 나머지는 일반 서민들에 의해 조성된 작품들이다. 이러한 15세기 목조상에 보이는 발원계층의 다양성은 金, 銀, 銅 등 금속제의 사용을 규제했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능했으며,<sup>29)</sup> 민중불교가 형성되는 16세기는 서민들이 주축이 되어 목조상을 조성한다. 불교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16세기 초반에 심화된 국가규제 아래에서 조성된 민중발원의 불상은 경제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제작이 용이한 목조상을 조성했으리라 짐작되며, 이러한 16세기의 풍토는 불교의 부흥기였던 임진왜란 이후의 대다수의 불상을 목조상으로 조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16세기를 대표하는 목조보살상 작품에는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

28) 김광희, 2007. 8, 위의 글, 155~156쪽.

29) 金銀에 관한 사용 규제는 조선 개국 초부터 등장한다. 태조 3년(1394)에는 紗·羅·綾·綺와 金銀으로 만든 패물은 궁중에 진상하는 것과 관원의 品帶에 소용되는 것 외에는 의정부와 중추부 이하 庶人に 이르기까지 모두 금지시켰고 승지 이상 이외에는 갓끈으로 금과 옥의 사용도 금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금지령은 경국대전의 금제 조항으로 높고 낮은 관리는 물론 庶人に 이르기까지 金銀器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太祖實錄』卷6, 太祖 3年 6月 己巳: 『經國大典』卷5, 『刑典』, 禁制條)

상, 신안사 목조관음·지장보살입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의 제작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6세기에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어 주목된다. 신안사 목조아미타삼존상(그림 13)은 기존에 흙으로 제작된 塑像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나무로 제작된 목조상임이 밝혀졌다. 주지스님의 말에 따르면 아미타삼존상이 약간의 파손이 있었는데, 像의 바깥 면에서 흙이 떨어져 나왔고, 불상의 바탕재질은 나무였다는 것이다. 불상을 조성하고, 불상의 바깥 면을 마감 하면서 흔히 호분과 칠을 사용하고, 그 위에 도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신안사 목조아미타삼존상은 불상을 완성한 후 외부 마감에 호분이 아니라 흙으로 대체하여 바르고 그 위에 도금한 것이다. 바깥 면을 흙으로 마감하는 제작기법은 고가의 호분 대신 흙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것은 16세기가 되면서 서민 중심의 조선시대 불교문화를 새롭게 형성하여 변모되어 가면서 민중들의 경제력에 따른 변화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는 15세기에 유행하던 금동상과 건칠상이 점차 줄어들고, 목조상이 많이 조성되고, 상의 외부마감을 호분이 아닌 흙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불화가 15세기에는 건본불화가 많았던 반면 16세기가 되면 마본불화가 출현하고 성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민중불교로 변화되어 가는 16세기의 특징이다.

#### IV. 발원문을 통해 본 조성배경

腹藏物은 불상과 불화가 예배대상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 불상 내부나 불화에 봉안하는 五方鏡, 五寶瓶, 五穀, 五藥 등의 상징물을 말하며<sup>30)</sup>, 불보살상을 단순한 조각이 아닌 예배대상으로 승화시킨다. 고려후기부터 성행하기 시작하는 복장물 봉안은 조선시대에는 거의 모든 불상 내부에 봉안되며, 조선전기에는 고려후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造像經』(용천사본, 1575년)의 유포로 보다 정형화된 불복장 봉안의식이 이뤄지는 것이다.<sup>31)</sup> 봉안된 복장물의 다양한 목록 가운데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연대, 봉안처, 조성의 연유, 발원자, 시주자, 제작에 참여한 자 등 불상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sup>32)</sup>

30) 洪潤植, 1997,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品の 歴史的 意味』,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38쪽.

31) 김광희, 2007. 8, 위의 글, 138~148쪽.

32) 복장의식에 대해 집대성하여 가장 체계적인 판본인 유점사본 『造像經』(1824)에는 복장물로 봉안하는 발원문에 대해 '願文은 푸른 비단에 紅書로 증명한 모든 스님, 제작자, 檀越, 緣化를 보고 들으며 따라 기뻐하여 도운 자들을 일일이 써야한다'고 하였다.『(전략)願文一度靑絹紅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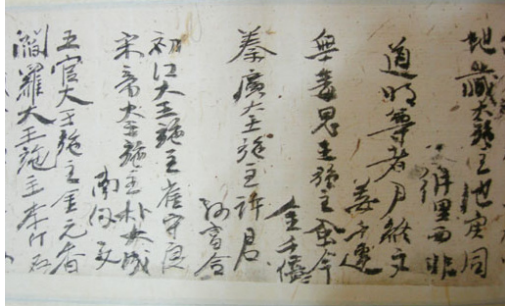
발원문이 남겨진 16세기의 보살상은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이 있고, 불상 제작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제작시기, 제작자, 발원자 등이 기록된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正德10年銘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어, 이 5건의 16세기 보살상 발원 내용을 토대로 발원자 및 시주자 계층과 제작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살상의 조성배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16세기 발원자 및 시주자 계층의 공통점은 승려와 일반 서민들이 주축이 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세기의 왕실, 사대부층 등 개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 16세기 보살상은 왕실 발원 작품은 전혀 없고, 승려와 지역민 등 일반 서민이 발원자와 시주자로 나타난다.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1501년)은 大化主로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인 前太內郡守 李園林은 通訓大夫라는 정3품의 품계를 받은 고위직의 인물이지만, 이외의 보살상의 발원자와 시주자층은 관직 등을 기록하지 않아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다. 正德10年銘 석조보살좌상(1515년)은 金順孫 부부, 金順代, 金貴天 부부, 宋和부부가 시주와 동시에 발원하고 있고,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1569년)도 金宗祖, 朴元忠, 羅石, 崔莫金, 李尊國이 시주자인 동시에 발원자로 등장하는데, 두 작품은 승려가 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일반 서민에 의해 조성되었다. 반면에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달성사 지장보살좌상은 100여명에 달하는 다수의 승속인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16세기부터 불상을 조성한 목적이나 인연 등의 내용보다 시주자명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상 조성에 시주하고 공덕을 쌓으려는 서민들이 구복신앙의 성격과 불교계가 많은 시주자층을 모아 어려운 사찰 경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억불시대의 특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가 되면 더욱 팽배해진다.

특히,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발원문은 시주물목을 구분하여 시주자명을 기록하고 하고 있어 흥미롭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에는 ‘佛像大施主 羅崇義’, ‘上金大施主 梁益准부부’ 로 기록하여 불상을 시주한 사람과 금을 시주한 사람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地藏大施主 池庚同, □里也非’, ‘道明尊者 尹終文, 姜千連’, ‘無毒鬼王施主 □今’ 등으로 적고 있어,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시왕, 일직사자, 월직사자 등 각 존상마다 시주한 사람을 따로 명기하고 있다.(그림 23) 이를 통해 시주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하게 시주한 내용이 달랐음을 알 수

證明諸師梓匠給侍檀越緣化見聞隨喜助緣者——備書爲可也(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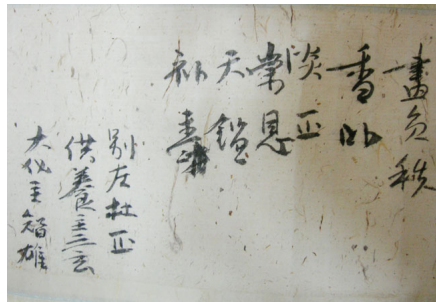


<그림 23>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 발원문 일부  
(사진제공 전지연)

있다. 16세기 불화의 화기에 서도 시주자들이 시주 물목을 함께 기록하여 시주를 분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國分寺 지장시왕도(1586년)의 화기에는 시주자가 각각 幀, 彩色, 朱紅, 眞粉 등을 분담하여 시주하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16세기 불상

과 불화 조성에 많은 수의 시주자들이 각각 시주 물품을 분담하고 있는 것도 발원의 주체가 왕실이나 사대부층이 아닌 일반 민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 天啓銘造成記(1626년)에 기록된 시주자는 佛像, 供養, 材木, 布施, 釘鐵, 苧布, 腹藏, 喉鈴筒, 喉鈴, 八葉, 燈燭 등을 각각 시주하고 있어, 17세기에는 시주자의 시주 물목이 더욱 상세히 기록되며, 많은 시주자들이 경제력을 분담함과 동시에 재력에 따라 시주 물목을 다르게 시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된다 하겠다.<sup>34)</sup>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발원문에 기록되는 제작자의 특징이다. 조각을 담당하는 제작자는 시기와 발원체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16세기에는 조각승이 많이 등장한다. 15세기 작품 가운데,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왕실발원 작품인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은 화원 李重善과 각 분야별 전문장인에



<그림 24>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 발원문 일부

의해 분업체제로 조성되었고<sup>35)</sup>, 승속인들의 결사로 조성된 통도사 금은제아미타삼존상(1451년)은 海了가 제작하였다. 조각승이 15세기에도 등장하지만, 16세기에는 거의 모든 불사에 조각승들이 관여하고 있다. 正德10年銘 석조지장보살

33) 박은경, 1993.12, 위의 글, 81쪽.

『萬曆四十年九月初爲始十一月,十六日開眼初點眼丁亥四月,初八日豫修志般水陸回向也,幀大施主金旻伊兩主,彩色施主吳孫愛兩主,朱紅施主丁軒兩主,眞粉施主姜金兩主』(후략)

34) 윤종균, 2002.11, 『법주사 대웅보전 삼신불 복장조사』, 『東垣學術論文集』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28-129쪽.

35) 김광희, 2007.8, 위의 글, 128~130쪽.

좌상은 ‘節學, 山人信□’,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은 ‘香卍, 智軒’, 달성사 목조지장시왕상은 ‘香卍, 淡正, 崇見, 天鑑, 福壽’가 조성하였다.(그림 24) 이 조각승들은 香卍을 제외하고 동명을 확인할 수 없어 조각승 관계, 유파의 형성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민중들이 발원한 작품들의 제작에 조각승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15세기 왕실과 사대부층 중심이었던 불교계가 억압과 통제가 심해지는 16세기가 되면서 지역 민중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불상 조성의 지구책으로 조각승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또한 16세기 마본 불화를 그린 주된 제작자가 대부분 화승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36)</sup>

16세기 보살상은 발원자 및 시주자, 제작자 등 보살상 조성에 관여하는 계층이 승려와 일반 서민들로 주축이 되고 있다. 15세기 왕실불교에서 17세기민중불교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민중불교의 시초가 되는 과도기적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16세기 보살상 조성 목적을 살펴보면 발원 내용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이 없고 왕실의 안녕과 수복을 축원하는 내용이 드물다.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은 先妻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있는 등 대부분 망자의 명복, 극락정토 왕생 등 개인의 구복적 성격이 농후하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같이 100여명의 지역민들이 발원하며 지역결사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은 주상, 왕비, 세자의 수복을 기원하고, 전라도관찰사 南世雄, 나주목사 奉嗣宗을 비롯한 전라도 나주지역 관료들의 안녕을 바라는 것은 나주지역민들의 결사적 성격의 보살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도 발원문 서두에 主上三殿壽萬歲에 이어서 全羅監司, 城主 申默, 禪宗判事 惠能, 教宗判事 雪梅을 기록하고 그 이하에 시주자를 적고 있어 지역민들의 집단적 불사였음을 보여준다.

## V. 맺음말

16세기는 불교억압과 증흥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시기로 고려후기의 귀족적 불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15세기와 조선시대의 민중불교적 특색이 분출되는 17세기의 징검다리과 같은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존하는 16세기 보살상은 10여점으로 독존, 삼존상의 좌우협시불 혹은 군

<sup>36)</sup> 박은경, 1993.12, 위의 글, 83~84쪽.

집상을 이루는 지장시왕상의 주존불로 표현된다. 16세기 보살상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별 작품의 양식적 특징에 국한되어 있고 종합적 연구가 미진한 상태여서, 본고는 16세기 보살상의 특징과 조성배경을 고찰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大衣와 偏衫을 通肩式으로 입은 보살상이 유행하는 16세기의 주된 양식적 특징은 도식화, 간략화와 생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15세기 보살상은 2단 원통형 寶冠, 섬세하게 표현된 寶髮, 온 몸을 감싸는 영락장엄 등에서 고려 후기 보살상 양식을 많이 계승하고 있지만, 점차 16세기가 되면 방형의 얼굴표현, 장식을 따로 제작하여 끼워 붙인 화려한 목재보관, 垂髮이 생략된 寶髮, 영락장엄과 장신구의 생략 등 과감한 생략으로 단순화되고 딱딱해지는 특징을 보여 17세기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6세기에 가장 많이 제작된 보살상의 도상은 觀音菩薩과 地藏菩薩이다. 극락왕생하는 미타정토신앙과 현실세계에서의 고통을 해소하는 등의 구복신앙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명부세계의 구세주인 지장보살의 유행으로 명부전 내에 지장보살상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 시왕상, 지옥 권속이 일괄로 봉안되는 군집형 지장시왕상이 등장하여 매우 특징적이다. 재료적 측면에서는 15세기에 銅造像, 乾漆像이 주류를 이루다가 16세기에는 木造像이 증가한다. 이러한 재료의 변화는 후원의 중심계층이 왕실과 사대부에서 민중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조성배경은 왕실과 사대부가 발원자로 등장하던 15세기와는 다르다. 16세기는 발원자 및 시주자계층이 승려와 서민들이 주로 등장하고, 제작자도 조각승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중불교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보살상 조성의 목적이 대체로 망자의 명복, 극락정토 왕생을 염원하거나 지역민들의 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이 16세기 보살상에 대해 그 특징과 발원문을 통한 조성배경을 고찰해 보았다. 자료의 미흡으로 지역성과 유파, 작가에 대한 연구는 깊이있게 다뤄지지 못했지만, 현재 개금불사 등이 진행되고, 활발한 조사 활동으로 예천 용문사 목조여래좌상(1515년)과 같이 16세기 불상이 새로이 발견되고 있어 보살상도 신자료의 발굴이 기대된다. 앞으로 신자료의 발굴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16세기 보살상에 대한 지역성과 작가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 17세기 불교조각과의 연관성도 더 깊이 있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2008년 7월 19일 |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29일 ■

## 참고문헌

### 경전 및 사료

『地藏菩薩本願經』

『造像經』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 보고서 및 도록

국립전주박물관, 1996, 『高麗末 朝鮮初의 美術』.

궁중유물전시관, 1994, 『이것이 답골탑의 놀라운 조각들!-원각사 10층 대리석탑 특별전-』.

文明大 篇, 1984,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_\_\_\_\_, 2004,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남도·대전시.

\_\_\_\_\_,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광주광역시.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불상 X-RAY조사 보고서1-乾漆佛』.

불교중앙박물관, 2007,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佛』.

수덕사근역성보관, 2004,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용문사정보박물관, 2006, 『龍門寺』.

山口縣立美術館, 1997, 『高麗·朝鮮の佛教美術展』.

### 단행본

權相老, 1979,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정희, 1996,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文明大 監修, 2003, 『삼매와 평담미』, 예경.

서금 著, 조동원·김대식·이경록·이상국·홍기표 譯, 2005, 『고려도경』, 황소자리.

유마리·김승희, 2004, 『한국美의 재발견7-불교회화』, 솔.

윤국일 옮김, 1998,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鄭恩雨, 2007,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문예출판사.

진홍섭, 1996, 『韓國美術資料集成 (3)』, 일지사.  
 통도사정보박물관, 1994, 『通度寺 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綜合的 考察』.  
 데경스님, 2006, 『조상경』, 운주사.

#### 논문

- 강덕우, 1994, 『조선중기 불교계의 동향-명종대의 佛教施策을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56.
- 김명자, 2005, 『安東의 關王廟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동향』, 『韓國民俗學』 42.
- 金奉烈, 1989,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敎理的 解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3, 『高麗末·朝鮮前期 地藏菩薩畫의 考察』, 『美術史學研究』157.
- \_\_\_\_\_, 1992, 『朝鮮前期의 地藏菩薩圖』, 『講座美術史』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_\_\_\_\_, 2001.9,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畫』, 『美術史學研究』231, 한국미술사학회.
- 文明大, 1983,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研究1』, 『梨花史學研究』13·14, 이화여자대학교.
- 文賢順, 2002, 『朝鮮初期 菩薩像의 寶冠 研究』, 『미술사연구』16.
- 朴桃花, 1997,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朴銀卿, 1993. 12, 『麻本佛畫의 出現 - 日本 周防 國分寺의 <地藏十王圖>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199·200,
- \_\_\_\_\_, 2002, 『일본 善導寺·長安寺 소장 16세기 조선불화: 새로운 소재의 등장, 絹·麻本佛畫』, 『東岳美術史學』3.
- 成春慶, 2000, 『達聖寺 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 『文化史學』14, 한국문화사학회).
- 宋殷碩, 2006,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종균, 2002.11, 『법주사 대응보전 삼신불 복장조사』, 『東垣學術論文集』5, 한국고미술연구소
- 李芬熙, 2002, 『朝鮮 前半期 阿彌陀佛像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3.
- 鄭永鎬, 1975, 『莊陸寺 菩薩坐像과 그 腹藏發願文』, 『考古美術』128, 한국미술사학회
- 鄭恩雨, 2002, 『高麗後期 菩薩像 研究』, 『美術史學研究』236, 한국미술사학회

- 林南壽, 2007. 3, 「X선투과촬영장치를 이용한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美術史學研究』253, 한국미술사학회
- 崔夢龍, 1977, 「莞島 觀音寺 木造如來坐像과 腹藏遺物」, 『美術資料』20, 국립중앙박물관.
- 崔素林, 2000,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彫刻坐像 研究 : 15世紀 佛像樣式의 一理解」, 『講座美術史』15, 한국미술사연구소.
- 崔恩頌, 2000, 「朝鮮初期 乾漆佛像에 관한 研究-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乾漆菩薩立像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7, 「韓國의 乾漆佛像 研究-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불교미술사학』 5,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 洪潤植, 1984, 「朝鮮初期 上院寺 文殊童子像에 대하여」, 『考古美術』164, 한국미술사학회.

Abstract

## A Study on the Bodhisattva Statues in 16th Century

Kim, Kwang Hee

In 16th century, the policy of oppression with Buddhism of King Yeonsangun and King Jungjong period and the policy of revive Buddhism of King Myeongjong period which there was an extreme opposition period which is oppression with Buddhism and revival of Buddhism. The period is very important one because it was a stepping-stones between 15th century and 17th century.

With reflecting phases of the times like this, the statues of Bodhisattva were made. The statues of Bodhisattva were seven during 16th century. They were composed of alone statues or assist of traid statues. The study of the Statues of Bodhisattva of 16th century is limited and the synthetic study is imcompleted. So this report has an object the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Bodhisattva and its making background.

In 16th century, the statue Bodhisattva of shaped-cloth Surplice and Samkaksika were prevalent. The main characteristics was summarized as diagramming, simplicity and omission. The statues of Bodhisattva in 15th century succeeded the form of the Post-Goryeo, from the view-point of the second cylindrical crown detailed expression of hair and Muktahara ornament shided its body. Gradually square-shaped features, gorgeous wooden crown which was attached after they were made separately and attached ornaments, omitted hair, omission of Muktahara and ornaments.

The most popular Bodhisattva in 16th century are Avalokite Vara Images and Ksitigarbha Image. In 16th century, to Nirvana to the Land of Paradise belief and relief the pains in the actual world were characteristic. Specially, Ksitigarbha Image of the Saviour of the world. The statue of Mutitude Ksitigarbha and ten great Kings of hell. were

appeared. So we can see statue of Ksitigarbha, statue of Do-myeong, statue of King Mu-dok, statues of Ten Kings in the Royal palace of the underworld. From the view-point of materials, the gilt-bronze statues, and the dry lacquer statues were the main current of 15th century. In 16th century, wooden statues were increased. This change shows that the supporting center switched over the mass from the Royal household and the Gentry.

In the 16th century, the supporting center are Buddhist Monk and the mass. And Sculptor make Buddhist statues are the Monk-Sculptors. So, the supporting center switched over the mass from the Royal household and the Gentry and Buddhist belief is the humble classes. The chief aims are the statues of Bodhisattva made in the 16th century is go after death to Nirvana to the Land of Paradise and the character of invoking a blessing which the pains in the actual world are dissolved and the descendants and a local resident concentrated Buddhism.

Key words : the statues of Bodhisattva, the King Myeongjong, the statue of Ksitigarbha and ten great Kings of hell, wooden statues, Buddhism of the people.